

전주시, 세계 주요도시와 협력 방안 논의

싱가포르서 세계 96여개 도시 참여 '세계도시정상회의' 참석... 우호교류 간담회·전주미래도시포럼 홍보

전주시는 지난 2~4일까지 3일간 싱가포르 선택시티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세계도시정상회의(World Cities Summit, 이하 WCS)'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싱가포르 살기좋은도시만들기센터(CLC, Center for Liveable Cities)와 도시재개발청(URA, Urban Redevelopment Authority)가 주관하는 세계도시정상회의는 살기 좋고 지속가능한 도시의 과제를 다루는 세계도시정상회의의 글로벌 플랫폼이다.

세계 96여개 도시의 대표단과 글로벌 정책·재계·학계 인사들이 대거 참여한다. 이 행사는 지난 2008년부터 2년에 한 번씩 열리고 있으며, 시는 올해 행사에 WCS 주최 측의 공식 초청을 받아 참석하게 됐다.

시는 이번 WCS에서 공식 행사인 리관유세게상, 다양한 주제별 포럼, 전시회 등에 참가해 지속가능한도시를 위한 글로벌 전략을 구상했다.

특히 시는 호주 멜버른과 스페인 빌바오, 체코 프라하, 대만 타이중 등과는 개별 우호교류 간담회를 갖고 전주미래도시포럼에 대한 관심을 요청하기도 했다.



전주시는 지난 2~4일까지 3일간 싱가포르 선택시티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세계도시정상회의(World Cities Summit)'에 참석했다.

이와 함께 시는 이번 싱가포르 방문 일정 둘째 날인 지난 3일에는 전주시와 MOU를 체결하고 전주대와 전북대 등 전주지역 대학들과 활발한 학생교류 추진 중인 테마세 폴리테크닉대학(이하 TP)에 방문해 부총장 등과 간담회를 갖기도 했다. 지난 1990년 설립된 TP는 1만3000명의 학생과 1400명의 교직원들이 다니고 있으며, 응용연구

와 비즈니스, 디자인, 인문사회 등 6개의 단과대를 운영하고 있다.

시는 이번 TP 방문에서 드론, 바이오헬스케어, 식품산업 등과 관련한 전주-싱가포르 글로벌 산학관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시장을 대신해 참석한 한민회 전주시 정무보좌관은 "다양한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싱가포르는 전주시와

교류가 가장 활발한 지역 중 하나로, 이번 출장을 통해 세계 각국의 주요도시와 협력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 WCS 조직위 측과도 '전주미래도시포럼 2024'의 발전방안을 논의했으며, 전주시가 글로벌 무대에서 더욱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2기 자치경찰위와 협력치안”

임병숙 전북경찰청장, 출입기자단 정례간담회서 약속

임병숙 전북경찰청장(사진)이 새롭게 출범한 제2기 전북자치경찰위원회와 협력치안을 약속했다.



입장에서는) 경찰을 더 잘 이해하고 자치경찰을 잘 아는 분들이 됐다고 생각한다"면서 "2기 자경위에 대한 기대가 좀 높다. 앞으로 조금 더 협력치안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강조했다.

임 청장은 4일 출입기자단 정례간담회에서 “(2기 자경위가) 직업군이 변호사와 전직경찰에 편중되어 있다는 우려가 나온 것을 알고 있다”면서 “인사 추천권은 각 기관에 분산이 되어 있는데 저한테는 추천권이 없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직업군을 고려해 누가 더 자치경찰에 맞는가 추천을 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직업편중 우려에도 (경찰)이 이번 출장을 통해 세계 각국의 주요도시와 협력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 WCS 조직위 측과도 '전주미래도시포럼 2024'의 발전방안을 논의했으며, 전주시가 글로벌 무대에서 더욱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시스



전주시 덕진구 인후1동 새마을부녀회는 4일 인후동 한신휴플러스아파트 경로당을 찾아 어르신 70여 명을 모시고 사랑의 영양 찰밥을 대접하는 봉사활동을 펼쳤다.

진안 한 마을 노인회 전 회장 수백만원 기금 착복 의혹

“관계 당국의 철저한 수사로 의혹 밝혀져야”

진안군 진안을 원단양마을 노인회 전 회장 L모씨(77)가 후임회장단에 인수인계 과정에서 수백만원을 넘겨주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관계 당국의 철저한 수사가 요구되고 있다.

4일 원단양마을 노인회 회원들에 따르면 L모씨는 2012년부터 2020년까지

8년간 노인회장을 역임하면서 노인회에 있던 기금 등과 적금 틀었다 찾은 500여만원을 사용한 근거를 대지 못하고 금액도 넘겨주지 않고 있어 후임 회장단과 심한 갈등 빚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원단양마을 노인회 A모 회원은 마을 기금도 제대로 처리 하지

않은 채 L모씨가 지난달 29일 진안을 노인회장으로 출마해 당선되자 “많지 않은 마을노인회 기금도 처리하지 않고 진안을 노인회장이 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걱정이 앞섰다”고 말했다.

B모 회원도 “L모씨는 수년간 원단양마을 노인회장과 진안읍 노인회 사무장을 함께 수행하면서 진안군 노인회

직원들과 다루지 않은 사람이 없었는데 진안을 노인회장이 되면 진안읍노인회가 발전하기는 어렵지 않겠냐”고 밝혔다.

이에 대해 L모씨는 “후임 회장단에 장부와 금액 일체를 인계 할 때 금액에 대해서 조금도 틀린 사실이 없었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주시 완산구, 행복출산·안심상속 윈스톱 서비스 홍보

전주시 완산구(구청장 배희곤)는 이달 3일부터 5일까지 많은 시민들이 손쉽게 각종 출산 및 양육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행복출산·안심상속 윈스톱 서비스' 대인 홍보에 나섰다.

행복출산·안심상속 윈스톱 서비스는 출산 및 사망신고에 따라 수반되는 각종 행정신고절차를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이다. 출생신고 후 양육수당, 아동수당, 출산지원금, 전기·가스요금 감면 신청과 사망자 또

는 피후견인의 금융 내역을 비롯해 토지, 자동차, 건축물, 세금, 연금 등의 재산조치를 시·구청, 동주민센터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한 번에 신청하는 통합 서비스이다.

완산구는 관내 산부인과 의원과 장례식장 22개소를 직접 방문하여 홍보물을 배포하고, 해당기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에 대한 행복출산·안심상속 서비스에 대한 안내를 적극 당부했다.

/김옥기 기자

완주서 차량 컨테이너 속 탄피 발견... “대공 용의점 없어”

공장으로 이동하던 차량에 실린 컨테이너에서 탄피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4일 완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9시30분경 완주군 봉동읍의 한 공장으로 들어오는 차량 컨테이너 박스에서 탄피 13개가 발견됐다.

확인 결과 해당 탄피는 국내에서 쓰이는 탄종의 것은 아니었으며 모두 쪼그러져 훼손돼 있었다.

군 당국은 이 탄피를 수거해 정확한

분석에 나섰다.

경찰은 해당 차량 컨테이너가 이전에 부산의 한 탄피 제조 공장과 해외를 오가던 중 컨테이너 안에 남아 있던 탄피가 발견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탄피의 상태로 보아 사용된 지 오래된 것으로 보인다”며 “발도의 대공 용의점은 없다”고 말했다.

/뉴스시스

전주 인후1동 새마을부녀회, 사랑의 찰밥 봉사

전주시 덕진구 인후1동 새마을부녀회(회장 조명숙)는 4일 인후동 한신휴플러스아파트 경로당을 찾아 어르신 70여 명을 모시고 사랑의 영양 찰밥을 대접하는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행사에는 인후1동 새마을부녀회 회원 15명이 참여하여 이른 아침부터 준비한 찰밥과 밑반찬 등을 차려드리며 경로당 어르신들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했다.

조명숙 인후1동 새마을부녀회장은 “무더워지는 날씨에 영양 가득한 찰밥을 드시면서 무더위로 날리고, 다가오는 여름도 건강하게 보내셨으면 좋겠

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나눔 활동을 통하여 이웃사랑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춘배 인후1동장은 “관내 어르신들을 위해 소중한 시간을 내어 봉사활동을 꾸준히 하고 계신 새마을부녀회 회원님들의 수고와 열정에 항상 감사드립니다”고 화답했다.

한편 인후1동 새마을부녀회는 지역 사회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노인복지관 배식봉사, 소외계층 밑반찬 지원, 관내 취약지역 청소 및 꽃화단 가꾸기 등 꾸준한 봉사활동으로 귀감이 되고 있는 단체이다. /김옥기 기자



“청소년이 아름다워야 세상이 아름답습니다”

제21회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 동아리 경진대회 -그룹사운드 부문-

2024년 6월 15일 오후 1시
전주 중부 비전센터 5층 비전홀

주최: (사)한국청소년동아리 전주시연맹
후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주매일신문사

**본 행사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보조금 사업으로 진행됩니다